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3년 만에 열린 백제큰길...공주백제마라톤 7000여명이 달린다

18일 오전 9시 스타트...풀코스 등 4개 부문 2040세대 대거 참가 '런닝 축제'로 자리매김

2022 공주백제마라톤(공주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공동주최)이 18일(일) 오전 9시 공주시민운동장을 출발해 금강을 따라 백제큰길 일대를 순환하는 '명품코스'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대회가 중단된 이후 3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대회는 열리지 않았고 2021년 대회는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로 진행됐다.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공주백제마라톤은 공주시가

2003년 1월 준공된 공주-부여 간 백제큰길을 기념하고 마라톤 인구 확대를 위해 시작했다. 매년 7000여명이 참가해 중부권 대표 마스터스 마라톤 대회로 우뚝 섰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 백제의 문화 유적지를 지나고, 코스 전체 고도차도 20m가 되지 않아 풀코스 입문자들도 자주 찾는다.

올해도 7000여 명이 참가해 풀코스, 하프코스, 10km 단축 마라톤, 5km 건강 달리기 등 4개 부문에서 런닝을 즐긴다. 올 참가자의 70%가 2040세대로 나타나 젊은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목표 시간대 완주를 돕기

위해 광화문 마라톤 모임 회원 44명(풀코스 22명, 하프코스 22명)이 페이스메이커로 나선다. 모든 완주자에게는 완주 메달이 제공된다. 2022 서울마라톤 참가자의 경우 공주백제마라톤과 10월 18일 열리는 경주국제마라톤까지 모두 참가하면 런저니 기념 스페셜 메달(5km 종목은 제외)을 받을 수 있다.

관계인 기자 jmart220@donga.com

- 주최: 공주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 주관: 스포엑스컴
- 후원: 충청남도 공주시체육회
- 협찬: 포카리스웨트 아미노바이탈 GC녹십자



UCL '왕별들' 몸값만 1조4158억원

포지션별 베스트11...움바페 2221억원 1위 메시·네이마르 등 못 끼여...슈퍼스타 세대교체

축구통계전문 트랜스퍼마크트가 14일(한국시간)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 선수들의 포지션별 가치를 공개했다.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PSG)가 1억6000만 유로(약 2221억원),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이 1억5000만 유로(약 2082억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가 1억 유로(약 1388억원)로 1~3위에 올랐다.

중원은 필 포든(9000만 유로·약 1249억원)~케빈 데브라위너(8500만 유로·약 1180억원·이상 맨체스터시티)~페드리(8000만 유로·약 1110억원·바르셀로나)로 구성됐다. 포백 중에선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리버풀)가 8000만 유로로 가장 비쌌다. 알폰소 데이비스, 마타이스 데리호트(이상 바이에른 뮌헨)는 7000만 유로(약 972억원), 후방 디아스(맨체스터시티)는 7500만 유로(약 1041억원)였다.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레알 마드리드)는 6000만 유로(약 833억원)다. 11명의 몸값을 합치면 무려 10억2000만 유로(약 1조4158억원)에 달한다.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 몸값을 자랑하던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이상 PSG)와 골잡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르셀로나)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UCL의 사나이'로 불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소속 팀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탓에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SSG-LG '1위 경쟁' KIA-NC '5위 싸움'... "성적표는 바뀔 수 있다"

지키기 vs 뒤집기...혼돈의 순위전쟁



시즌 막판 되살아난 순위경쟁의 불씨로 KBO리가 뜨겁다. 우승 고지에 오르려는 SSG 김원형 감독과 LG 류지현 감독, 포스트시즌 진출의 마지막 선인 5위를 다투는 KIA 김중국 감독과 NC 강인권 감독대행(왼쪽부터)의 속도 타들어간다.

정규시즌 막판 살얼음판 승차 유지 경쟁팀 간 맞대결서 사실상 판가름



순위표는 이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승률 양극화로 전반기를 마감한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가 종착역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졌다. 키움 히어로즈와 K T 위즈의 3위 싸움만 치열하게 전개될 듯했으나, 이제는 1위 SSG 랜더스도 정규시즌 우승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5위 KIA 타이거즈 역시 가을야구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선 마지막까지 전력질주를 거듭해야 한다.

SSG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저지하려는 팀은 2위 LG 트윈스다. 8월까지만 해도 LG는 SSG에 6계

임차 뒤진 2위였으나, 9월 들어 연승 바람을 타며 격차를 3경기까지 좁히기도 했다. 14일 기준으로 SSG는 80승4무43패, LG는 75승2무46패다. 4게임차다.

두 팀의 맞대결은 아직 한 차례 더 남았다. 25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시즌 16차전을 치른다. SSG는 LG와 간격을 최대한 벌린 상태로 이날 맞대결을 벌여야 1위 수성에 부담이 없다. 반면 LG는 격차를 최대한 좁힌 뒤 이날 맞대결에서 역전극의 기운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두 팀 모두 강력한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25일 빅매치가 예상된다. SSG 월터 폰트와 김광현, LG 케이시 켈리와 아담 플랫코가 팀의 운명을 짊어지고 마운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5위 KIA는 6위 NC 다이노스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KIA는 5위를 확보하려면 5할 승률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13~14일 키움과 광주 2연전을 모두 내주는 바람에 가을야구 진출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반면 NC는 9월 초부터 6연승을 질주하며 순식간에 KIA에 다가섰다. 박건우, 양의지 등 주축선수들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는 중이다. 14일 현재 KIA가 62승1무63패, NC가 56승3무64패로 3.5게임차다.

두 팀은 22~24일 창원NC파크에서 3연전을 치른다. 이 3경기의 결과에 따라 순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두 팀은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치를 창원 3연전에 집중시킬 전망이다.

1위와 5위, 달성 여부에 따라 각 팀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올 시즌의 결말에는 아직도 물음표가 가득하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CJ WELLCARE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10년 연속 판매 1위

Returnup 리턴업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영양성분표

1회분량 당 함량: 열량 0kcal, 탄수화물 0.0g(0%), 단백질 0.0g(0%), 지방산 0.0g(0%), 나트륨 0mg(0%), 포스산(phosphate) 88.8mg, 비타민B1 12mg(100%), 비타민B2 1.4mg(100%), 비타민B6 15mg(100%), 비타민B12 2.4μg(100%), 아연 4.05mg(58%), 셀레늄 30μg(55%)

※ (인)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X(10+)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2개월분 추가증정

CJ 웰케어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